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5. 3. 9. Vol. 10

■ 농정이슈

TPP 주요 동향 등

■ 정책브리핑

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(2015~2019)

■ 연구지원

2014년 원격탐사 활용 경지면적 조사 결과

농정이슈

국내 언론 동향

□ TPP 주요 동향

- [마일 TPP 실무협상 재개, 3.5., 일본 도쿄]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장, 기자회견에서 △“**꽤 큰 진전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**.” 다만 남아있는 문제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”, △“**조속한 TPA 법안 성립이 TPP 타결의 전제**이며, (타결까지) **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**하겠다”고 밝혀(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, 3.6.)

- (향후 일정) TPP 참여 12개국 수석 협상관 회의 개최(3.9.~, 미국 하와이)

- 협상 타결 시기: (언론 1) 4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전 TPP 협상 타결 가능성 / (언론 2) 마일 실무 협상 올봄 타결 기대(일본 고위관계자, 협상 타결 시점, 늦은 봄이나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라고 언급)
- TPA 법안 관련: (언론 3) TPA 법안 심의 지연 관측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진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 / (언론 4) 미국 TPA 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각료 간 합의 후에도 미 의회에서 수정 요구 우려

자료 : 서울신문(2015.3.2.) / NEWSis파이낸셜뉴스(2015.3.4.) / YTN(2015.3.5.) / 아시아투데이(2015.3.6.) / 파이낸셜뉴스(2015.3.7.)

□ FTA 활용...농식품 수출 확대

- [부처 합동 ‘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’ 개최*, 3.3~4.1, 8회] 농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관세청,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‘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’ 추진

※ 서울무역아카데미(3.3.), 수원상공회의소(3.6.), 부산무역아카데미(3.9.), 대구상공회의소(3.10.), 광주상공회의소(3.17.), 전북경제통상진흥원(3.18.), 청주상공회의소(3.24.), 대전상공회의소(4.1.)

- (필요성) 국내 전체 산업의 FTA 활용률이 66.9%인데 반해, **농수산식품 분야는 23.1%에 불과**, FTA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
- (주요 교육 내용) △FTA 활용 촉진 지원정책(산업부), △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(상생협력추진본부), △찾아가는 YES FTA센터 지원정책(관세청), △농식품 수출 지원사업(농식품부), △농식품 무역보험 지원사업(무역보험공사)

자료 : NEWSis머니투데이·세계일보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파이낸셜뉴스·한국경제(2015.3.3.) / 농민신문(2015.3.4.) / 축산신문·한국농어민신문·한국농업신문(2015.3.6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 「‘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’ 위해 농식품부·산업부·관세청 합력 합진대! - 부처 합동 ‘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’ 개최(3.3~4.1, 8회) -」 (2015.3.3.)

㉔ 농정이슈

□ 할랄식품 시장에 농식품 시장 진출 계기 마련

- **[한-UAE(아랍에미리트연합)간 “농업 및 할랄*식품 협력” MOU 체결, 3.5.]** 박대통령 중동 순방 계기(3.1~9.), UAE 환경수자원부 및 표준측량청과 MOU 체결, **중동의 할랄식품 허브인 UAE와 상호협력 강화 계기 마련**
 - ※ 아랍어로 ‘신이 허용한 것’이란 의미로,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(약 18억 명 추정)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·의약품·화장품 등 총칭
 - **(농식품 시장 진출 위한 교두보 확보*)** △할랄식품 시장 수출 확대(2014, 6.8 → 2017, 12.3억 달러), △품목도 가공제품 위주에서 전통식품 등으로 다변화 기대
 - ※ 세계 할랄식품 시장규모: (2012) 1조 880 → (2018) 1조 6,260억 달러(식음료시장의 17.4%)
 - ※ UAE 식품 수입 현황: △한국산 농식품 수출현황: 2014, 약 3억 달러(권면 2.7억 달러, 커피조제품 4.7백만 달러, 과즙음료 3.3백만 달러), △식품 수입규모: 7.5억 달러 추정(두류 51.4백만 달러, 밀 51.2, 인스턴트식품 50 등)
- 자료: YTN(2015.3.5.) / MBCSBS-YTN경향신문·국민일보·NEWSis 동아일보·서울경제·서울신문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조선일보·중앙일보·파이낸셜뉴스·한겨레·헤럴드경제(2015.3.6.)
- 참고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- 3.5일, 한-UAE간 “농업 및 할랄식품 협력” MOU 체결 -」(2015.3.5.) / 청와대 뉴스_「대통령, UAE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 결과」(2015.3.5.)

□ 농식품부, 2015년 쌀·밭·조건 및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

- **[2015년 쌀·밭·조건불리 및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·접수, 3.2~]** △쌀·밭·조건불리 직불금 6.15.까지, △친환경농업 직불금 3.31.까지 신청
- **(쌀·밭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)** △쌀직불금·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에 대한 지급기준 완화*, △밭직불금·춘파 등 논 이모작 재배(식량사료작물)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 한시적 허용(직불금 신청 가능)
 - ※ (기존)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㎡ 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 이상 → (변경)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, 1천㎡, 120만 원 이상
- **(친환경농업 직불금) 328억 원 지원**,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 경영체 등록 등 지급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, 올해부터 **‘유지지속 직불제*’ 신규 시행**
 - ※ 직불금을 이미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지급

관련 연구 |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 방안(2014), 정학균 외

자료: KBS-SBS-YTN(2015.3.1.) / 국민일보·NEWSis·아시아경제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(2015.3.2.) / 농민신문(2015.3.4.) / 한국농어민신문·한국농업신문(2015.3.6.)

참고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쌀·밭·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개시 -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)과 통합신청(3.2~6.15) -」, 「201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-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총 328억 원 지원 -」(2015.3.2.)

㉔ 농정이슈

□ 국내 최초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

- **[대호간척지(충남 당진군) 수출용 원료 벼 재배단지 조성 위한 업무협약식* 개최, 2.27.]** 쌀 관세화 및 쌀 소비 감소에 적극 대응, **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도모****
 - ※ 농식품부, 민관합동 농수산식품수출개척협의회, 한국쌀가공식품협회, 쌀수출협의회, 농촌진흥청,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·단체 참여
 - ※※ 쌀 및 쌀가공품 수출경쟁력 확보 통한 수출 확대 목적으로 기획한 「대호간척지 수출용 원료 벼 생산 프로젝트」(2014.12.)의 후속 조치
 - **(대호간척지 수출용 벼 재배 면적 확대)** (2015) 200 → (2016) 540ha
 - **(증가지적)** 수출용 원료 벼 생산단지를 중소농 중심의 들녘경영체 육성과 연계 하여 **대규모 수출용 쌀 공급 기반 구축**
- 자료: 뉴스와이어·NEWSis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·헤럴드경제(2015.2.27.) / 농민신문·농촌여성신문(2015.3.2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5.3.3.)
- 참고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국내 최초의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- 6개 기관 대호간척지 단지 조성 협약식 개최(2월 27일) -」(2015.2.27.)

□ 농식품부, 한우개량사업에 348억 원 투입

- **[농식품부, 한우개량지원 위해 348억 원 투입]** △한우개량 가속화 위한 한우 암소 개량사업 신규 추진(55억 원), △고능력 씨암소 축군(총 600마리 수준) 조성사업, △우수 수정란 공급 시범사업 및 저능력 암소 도태 인센티브 지원사업
 - **(필요성)** 부계의 유전형질만 전달되는 **씨수소 개량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**, 현행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위주의 개량체계를 **암소의 유전능력까지 고려**
 - **[한우개량통합정보시스템 구축]** 한우 개량기관별로 분산된 암소개량 빅데이터 통합하여 개체별 맞춤형 정보 제공
- 자료: NEWSis·머니투데이·아시아경제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헤럴드경제(2015.3.4.)
- 참고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농식품부,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- 2015년 한우개량지원 사업에 348억 원 투입(전년대비 19% 증가)」(2015.3.4.)

□ 가축분뇨 활용해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확보

- **[가축분뇨자원화시설*의 온실가스 감축방법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에서 인증 CDM**사업으로 인정되어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]**, 올해부터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 형성되어 국내외 판매 가능,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가 소득증 창출*** 기대
 - ※ 정읍시에 설치된 시설로 4개월간 408tCO₂의(연간 1,224) 탄소배출권 획득, 10년간 12,214tCO₂를 인정받아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경우 1억 2천만 원(국내 현 거래 가격)의 부가적 수익 기대

㉔ 농정이슈

※ ※ 청정개발체제: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 감축 실적으로 허용하는 제도, 2005년부터는 개도국이 자체 감축한 실적도 인정(현재 우리나라가 UN에 등록한 CDM 사업: 태양광, 풍력, 소수력발전 등 90건)

※ ※ ※ 가스 생산 및 발전, 퇴·액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‘탄소배출권’ 판매

자료 : YTN(2015.3.4.) / 경향신문·국민일보·NEWSis·머니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데일리·파이낸셜뉴스·한국일보·헤럴드경제(2015.3.5.) / 농민신문·축산신문(2015.3.6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- 국내 최초로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시설, 국제 탄소배출권 획득, 창조경제 모델로써 확산을 위해 지원강화 계획 -」(2015.3.5.)

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원

○ [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]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, 3.6.~4.15.]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

- (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필요성) 소득수준 고려하지 않은 정률제 지원 방식은 고소득층일수록 지원금액 커 개선 필요 지속 제기

- (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주요 내용) △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 3개 구간*으로 구분·차등지원하되,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 고려하여 고시로 정할 예정, △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**, △범 개정에 따른 용어(농어민 → 농어업인) 정비, 타법 인용조문 수정

※ (1구간)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% 정률 지원 / (2구간)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(2구간 최저점수의 28%) / (3구간) 지원 제외

※ ※ (현재)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, (개정안) 재산기준을 450만 원까지 상향조정

- (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주요내용) △농어촌 정와·사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 (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) → “차차구의 동 지역 중 일부”(농식품부장관 고시 지역) 추가

자료 : news1·NEWSis·머니투데이·아시아경제·연합뉴스·이데일리·투데이·파이낸셜뉴스·헤럴드경제(2015.3.6.)

참고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_「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」(2015.3.5.)

□ 귀농인 7월부터 10억 원까지 대출

○ [금융위원회, ‘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’ 입법 예고, 2.28.]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·귀어업인도 개인 10억 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 가능

※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: 개인 10억 원, 법인 15억 원

㉔ 농정이슈

- (개정안)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‘농림수산업자금’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‘예비농림어업인*’에게 지원되는 자금 추가

※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‘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’과 ‘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, 입업후계자 등

자료 : SBS·YTN(2015.2.28.) / 경향신문·매일경제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투데이(2015.3.2.)

참고 : 금융위원회 의결정보_「제4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」(2015.3.4.)

□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처벌

○ [대법원 양형위원회 제62차 전체회의 개최, 3.2.] ‘식품·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’ 심의의결,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신설*, 유해 식품, 축산물,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 행위로 형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규정 신설 등

〈식품·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개정법을 주요 요지〉

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

- 조리 판매제공자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(법 제15조): 3년 → 7년 이하 징역

-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(제16조의2): 10년 이하 징역
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

-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중량 등을 늘리는 행위(가축에 대한 부정행위)에 대한 법정형 상향: 7년 → 10년 이하 징역

자료 : YTN(2015.3.2.) / 국민일보·NEWSis·머니투데이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헤럴드경제(2015.3.3.) / 농민신문(2015.3.6.)

참고 :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도자료_「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」(2015.3.2.)

□ 구제역 및 AI 발생 주요 동향

○ [구제역 발생 동향, 3.4. 현재] △총 127건(돼지 123, 소 4), △살처분: 131농장(114,257마리)

- (방역관리 강화방안 마련) △O 3039가 포함된 단가백신(O1 manisa + O 3039) 3월 중순부터 공급, △3~4월 집중소독, △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(NSP항체) 강화, △발생지역 내 양돈 밀집지역 특별관리 방안 마련·운영

○ [AI 발생 동향, 3.4. 현재] △총 114건, △살처분: 137농가(3,531천 수)

자료 : 경향신문·내일신문·세계일보·아시아투데이·한국농어민신문(2015.3.3.) / KBS·YTN·문화일보·국민일보·서울경제·연합뉴스(2015.3.4.) / KBS·YTN(2015.3.5.) / 농민신문·NEWSis·머니투데이·연합뉴스(2015.3.6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 추진(AI 발생 및 방역조치 포함)」(2015.3.5.), 농식품부 자료_「AI 방역추진상황(03.02.)」(2015.3.2.)

정책브리핑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(2015~2019)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5.3.3.)

□ 개요

- [농식품부,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(2015~2019) 확정·발표, 3.3.] ‘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’ 개최(2.25.), ‘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’ 심의·의결, 계층·대상별 맞춤형 체험교육 기회제공 및 우수한 식생활 환경 조성하여 바른 식문화 구현
 - ※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·기획단 구성·운영하여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2차 기본계획(안) 마련, 관계부처 실무협의 및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
- (추진배경) 국민소득 증가, 식생활 서구화로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·당뇨병·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
 - ※ 비만인구비율(19세 이상): (2001) 29.6% → (2013) 31.8%(10명 중 3명)
 - ※ 당뇨병(30세 이상): (2001) 8.6% → (2013) 11.0%(10명 중 1명)
 - ※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(연간): (2005) 약 6천억 원 → (2010) 약 8천억 원
- (구성) △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, △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, △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, △농어업과의 연계 및 환경과의 조화, △전통식문화의 계승·발전, △추진기반(정보·홍보·교류) 등의 6개 부문(47개 실천과제)

□ 주요 내용

- ‘가족 사랑의 날’과 연계, **매주 수요일을 ‘가족 밥상의 날’ 지정·운영**
- 가정·학교 등 현장에서 사용할 **‘공동 식생활지침’ 및 ‘식생활 모형’ 마련**
- **2015년 개정 교육과정(2018년부터 시행)에 식생활교육 관련 내용* 반영**
 - ※ 음식에 대한 기초지식, 식품의 생산·유통·조리과정, 전통식품 등
- 지역 여건 반영한 **지자체 「식생활교육 기본계획」 수립 및 「식생활교육 위원회」 구성, 「식생활교육 조례」 제정**
- 식생활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이 낮은 **취약계층 대상(독거노인, 남성, 미혼 여성, 군대 등) 세대·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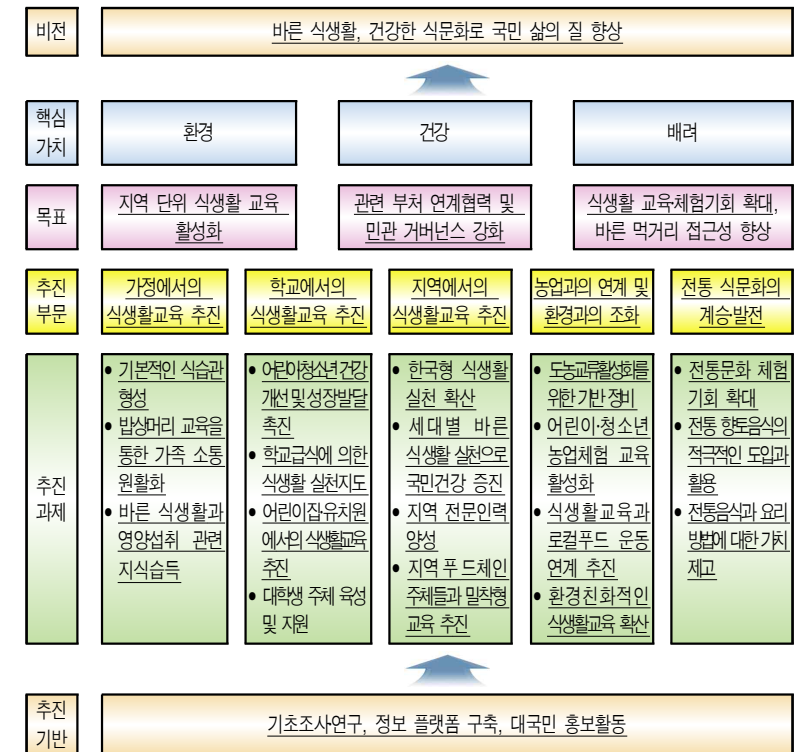
- **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·시행** 및 실태조사*

※ 전국 초·중·고(약 11,000개교) 대상 학교급식 실태조사(2015.상)

- **전통 발효식품(장류·떡·한과·김치 등)의 우수성·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체험교육 확대**
- 우리 식문화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**‘한식과 한식문화’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**
- **‘식생활교육의 달(6월)’ 및 ‘식생활교육 주간(6월 셋째주)’ 지정·운영**
- 식생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 **R&D 확충**

관련 연구 국민 표준식생활지침 기준 마련 및 식생활정책 발전방안(2014), 이계임 외

■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



연구지원 2014년 원격탐사 활용 경지면적 조사 결과

자료: 통계청(2015.2.27.)

□ 조사 개요

- **[조사목적]** 농업생산 기반인 농경지 자원의 확보와 이용, 농작물 생산계획 수립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
- **[조사대상]** 환경부에서 제작한 토지피복지도를 모집단으로 하여 Grid(격자) 형태의 공간표본 추출 틀 구성한 후 추출한 200m×200m 단위 42,062개소 표본구역(SSU: Secondary Sampling Unit)
- **[조사방법]** 위성영상 활용한 원격조사*
 - ※ 통계청, 2012년부터 경지면적을 원격탐사(Remote Sensing: RS)로 조사, 표본지역의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경지면적 통계 작성
 - 항공영상 활용 → 표본점에 대한 경지경계구획도 제작 → 당해 촬영된 위성영상과 중첩 → 각 필지별 분류 값(논, 밭 등) 부여 후 각 분류별 면적 산출
 - ※ 활용영상: 아리랑2호, 3호(각각 공간해상도 1m, 0.7m급,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) 및 Rapideye(독일, 5m급)
- **[조사체계]** 표본구역(SSU)의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경지면적 산출

통계청 농업통계과 ↔ 연구용역 수행기관 ↔ 42,062개 표본구역(SSU)
- **[조사기간(영상판독기간)]** 2014. 5. 2. ~ 12. 15.(7개월)
- **[조사항목]** 경지면적(논+밭), 경지면적 증감사유별(논밭전환, 개간, 간척, 건물 건축, 공공시설, 기타 등) 면적

□ 2014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

- **[경지면적]** 1,691천ha, 전년(1,711천ha)대비 1.2% ↓
 - (논면적) 934천ha, 전년(964천ha)대비 3.1% ↓
 - (밭면적) 757천ha, 전년(748천ha)대비 2.1% ↑

- **[경지면적 증가감소]** 증가면적 11.2천ha, 감소면적 31.5천ha 전년대비 20.3천ha ↓
 - 2013년도 원격탐사 경지면적에 비해 1.2% 감소한 것으로, **최근 10년간 현장 조사 경지면적조사의 연평균 감소율(-1.1%)과 비슷**
 - (논) 증가면적 4.7천ha, 감소면적 34.9천ha, 총 30.3천ha ↓
 - (밭) 증가면적 35.0천ha, 감소면적 25.0천ha, 총 9.9천ha ↑

Ⅰ 경지면적 증가감소 현황 Ⅰ

단위: 천ha

구분	증가			감소						증감계
	논밭전환	실 증가 개간간척	계	논밭전환	실 감소				계	
					건물건축	공공시설	유류지	기타		
계	28.4	11.2	39.6	-28.4	-2.9	-1.2	-0.8	-26.7	-60.0	-20.3
논	2.8	1.9	4.7	-25.6	-1.0	-0.6	-0.6	-7.1	-34.9	-30.3
밭	25.6	9.3	35.0	-2.8	-1.8	-0.6	-0.2	-19.6	-25.0	9.9

- **[사도별 경지면적]** 전남 305.9천ha(18.1%) > 경북 277.7(16.4) > 충남 219.2(13.0) 순
 - (사군별) 해남군 35.1천ha(2.1%) > 제주도 31.5(1.9) > 서귀포시 31.2(1.8) 순

Ⅱ 면적별 상위 5개 사군 Ⅱ

단위: ha

구 분	시 군	면 적
경지면적이 큰 상위 5개 사군	해 남 군	35,071
	제 주 시	31,452
	서귀포시	31,234
	김 제 시	28,494
	서 산 시	27,077
논 면적이 큰 상위 5개 사군	김 제 시	23,167
	해 남 군	22,775
	서 산 시	21,416
	당 진 시	21,308
	익 산 시	18,998
밭 면적이 큰 상위 5개 사군	제 주 시	31,446
	서귀포시	31,221
	안 동 시	13,204
	해 남 군	12,296
	상 주 시	11,526

농진청, 우리나라 6대 과수 재배지 변동 전망

□ 개요

- [농촌진흥청, 우리나라 6대 과수 작물(사과·배·복숭아·포도·단감·감귤) 재배지 예측]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개발한 '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*' 바탕으로 우리 농업 환경에 맞는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 개발, 2010년대부터 209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재배지 변동 상세히 예측
 - ※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과 재배양식 등의 재배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기후 변화 시나리오(RCP 8.5**)를 바탕으로 제작
 - ※ ※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에 예상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
- (총 재배 가능지* 면적 변동 예측한 결과) 사과 재배 면적 감소 지속, 배·복숭아·포도는 21세기 중반까지는 조금 늘다 다시 감소, 단감·감귤은 증가 지속 전망
 - ※ 재배 적지+재배 가능지

□ 주요 내용

- [사 과] 과거 30년 동안의 재배 면적과 비교해 앞으로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모두 급감,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 가능
- [배] 204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 면적 증가하다가 2050년대부터 감소, 고품질 과실 재배가 가능한 재배 적지는 2040년대부터 급감
- [복숭아] 205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 면적이 과거 30년 평균 면적 대비 소폭 증가하나 이후 급감
- [포 도] 재배지 총 면적이 2050년대까지 완만히 늘다가 이후 급감,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재배 적지는 2020년대부터 급감
- [단 감] 고품질 재배 가능한 재배 적지 면적이 꾸준히 늘어 총 재배 가능 면적 증가, 재배 한계선 올라가고 산간 지역 제외한 중부 내륙 전역으로 확대
- [감 귤] 총 재배 가능지가 계속 증가, 재배 한계선이 제주도 → 남해안·강원도 해안 지역으로 북상

자료 : 농촌진흥청(2015.2.27.)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